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
		배포일자	2022년 8월 31일(수) 총 3매	
담당 부서	건강증진과	담당자	• 치매관리팀장 조명희 ☎440-2981 • 담당자 김인미 ☎440-2983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시, 수도권 최초 ‘치매안심병원’ 9월부터 운영

- 인천 제1·2시립노인치매전담요양병원, ‘치매안심병원’ 으로 지정 -
- 중증치매환자 환자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기대 -

인천시가 수도권 최초 ‘치매안심병원’ 운영을 통해 중증치매환자들의 전담치료 및 관리를 본격화 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 제1·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31일 지정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중증치매환자의 치료·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
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(치매에 동반되는 폭력, 망상 등의 증상) 및 섭망을 동반한 중증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·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으로, 보건복지부가 전국 77개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동 설치(시설·장비·인력)가 완료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.

인천시는 전국 8번째,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지정됐으며 총 83개의 병상을 운영할 방침이다.

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환자와 구분된 치매환자 전용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 전용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치매전문병동(지하1층·지상3층·연면적 970㎡·46병상)을 증축했으며, 39종의 전문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 인력(신경과·정신과전문의 등)을 갖추 집중치료 환경을 구비했다.

또한 지난해 ‘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’ 사업에 선정된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올해 3월 기존 치매전문병동 37병상에 에너지 향상 및 실내 공기질 개선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.

입원대상은 3개월 이내 단기집중치료 후 가정 또는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심리증상 및 섬망을 동반한 치매환자로, 입원 전부터 퇴원 후 까지 전 과정 병원과 연계해 개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.

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“우리 시에 ‘치매안심병원’이 지정되면서 그동안 정신의료기관,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온 치매환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”면서 “앞으로도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에 더욱 노력 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

## 치매안심병원 지정 브랜드 로고

